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신 : 청소년,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의 : 박조은미 016-463-4844, 전누리 016 297 9803)

제목 :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에 참여를 제안합니다.

날짜 : 2007. 1. 17

1. 청소년인권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6년 3월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 몇몇이 결성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한 해 동안 학생 인권법 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네트워크는 5.14 두발자유집회,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의 날 학생인권 탕땡볼 굴리기와 학생의 날 행사 캠페인·부스 참가 등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명고, 양동중, 동성고, 금릉중 등 학교 안에서 인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서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소중한 연대는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런 연대가 없었다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여러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4.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거름삼아 2007년에도 더욱 빛나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활동을 나누고 계획하며 보듬는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를 1박2일 일정으로 열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고민해온 귀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나 청소년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와 참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기획안, 홍보웹자보

[첨부-1]

##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 짓 다 』

### ■ 모시는 글

짓다.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인권을 짓다, 희망을 짓다. 내일을 짓다. 같이 짓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발을 내딛은 2006년, 희망과 의지로 당차게 내딛은 발이었지만 아직은 얼어 있는 학교라는 땅 위는 참 시렵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교문은 묵직했고 억압받는 청소년인권 현실은 마주칠 때마다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감감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함께 힘을 모아온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2006년 달력위에 뚜렷한 발자국 하나 남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학생인권법 발의는 청소년인권운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한발 더 끌고나왔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정표가 되었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뿐 아니라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많은 단체들이 학생인권법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행동들을 펼쳐왔습니다. 2005년 5월의 뜨거웠던 광화문을 기억하며 열었던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은 여전히 식지 않은 청소년들의 의지를 확인하게 했고 여름에 있었던 전국 행진은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뿌리내리기 위한 운동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동성고, 청명고, 양동중, 금릉중학교에서 벌어졌던 운동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청소년인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학교 안 학생들과 관계 맺으며, 함께 운동하며 제기된 문제들은 우리에게 학교와 실질적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을 고민한 활동가들에게 훨씬 깊은 고민과 더 풍부한 조언, 나눌거리들이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고민들을 서로의 머리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2007년, 여전히 시려울 인권현실과 보다 더 뜨거울 청소년인권운동의 내일을 위해 활동가 여러분과 지친 마음 도닥이고 아픈 발 주물러주며 보다 단단한 걸음을 걷기위한 소통과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짓기 위한 제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들

#### 1. 두리번두리번, 길을 찾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굳게 닫힌 사회와 학교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 사회를 향한 '두드림'이 해마다 계속될수록 우리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의식들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녹아 왔습니다. 교사/학부모와의 연대, 활동에 대한 주변과의 소통, 학교 모임(+학생회) 등등. 2007년, 다시 '두드림'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고민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다른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사회에 파장이 될 수 있도록.

## 2. 꼬물꼬물, 눈을 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매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 장애, 성적체성, '인문계>실업계>비학생'이라는 등식 등등... 우리 가슴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차별에 눈을 떠봅시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함께 길러봅시다.

## 3.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다.

힘들었습니다. 설 틈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우리 주변에는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기에 때로는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것들, 비록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꺼내놓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털어놓고 서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 일시, 장소, 참가비 등

일시 : 2007년 2월 10일~11일 (1박 2일)

장소 : 서울 유스호스텔(충무로역)

참가방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cafe.daum.net/youthhr)에서 신청

참가비 : 수도권 청소년 2만원

지방 청소년 1만원

성인 2만 5천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현재 난장을 개최하기 위한 재정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개인활동가들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행사 홍보 요청

날짜 : 2007.1.17(수)

문의 : 박조은미(청소년다함께/016-463-4844), 전누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016-297-9803)

##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 때: 2월 10일~11일 (1박 2일)

□ 곳: 서울(추후공지)

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인권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6년 3월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 몇몇이 결성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한 해 동안 학생인권법 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네트워크는 5.14 두발자유집회,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의 날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와 학생의 날 행사 캠페인·부스 참가 등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명고, 양동중, 동성고, 금릉중 등 학교 안에서 인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여러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거듭삼아 2007년에도 더욱 빛나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활동을 나누고 계획하며 보듬는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을 2월 10일~1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고자 합니다.
5. 이 대회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고민해온 귀 언론사에 행사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 첨부 :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기획안, 웹자보

**-첨부 1-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 기획안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 짓 다 』

## ■ 모시는 글

짓다.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인권을 짓다, 희망을 짓다. 내일을 짓다. 같이 짓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발을 내딛은 2006년, 희망과 의지로 당차게 내딛은 발이었지만 아직은 얼어있는 학교라는 땅 위는 참 시렵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교문은 묵직했고 억압받는 청소년인권 현실은 마주칠 때마다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갑갑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함께 힘을 모아온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2006년 달력위에 뚜렷한 발자국 하나 남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학생인권법 발의는 청소년인권운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한발 더 끌고나왔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정표가 되었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뿐 아니라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많은 단체들이 학생인권법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행동들을 펼쳐왔습니다. 2005년 5월의 뜨거웠던 광화문을 기억하며 열었던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은 여전히 식지 않은 청소년들의 의지를 확인하게 했고 여름에 있었던 전국 행진은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뿌리내리기 위한 운동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동성고, 청명고, 양동중, 금릉중학교에서 벌어졌던 운동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청소년인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학교 안 학생들과 관계 맺으며, 함께 운동하며 제기된 문제들은 우리에게 학교와 실질적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을 고민한 활동가들에게 훨씬 깊은 고민과 더 풍부한 조언, 나눌거리들이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고민들을 서로의 머리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2007년, 여전히 시려울 인권현실과 보다 더 뜨거울 청소년운동의 내일을 위해 활동가 여러분과 지친 마음 도닥이고 아픈 발 주물러주며 보다 단단한 걸음을 걷기위한 소통과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짓기 위한 제1회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짓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들.

### 1. 두리번두리번, 길을 찾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굳게 닫힌 사회와 학교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 사회를 향한

‘두드림’이 해마다 계속될수록 우리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의식들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녹아 왔습니다. 교사/학부모와의 연대, 활동에 대한 주변과의 소통, 학교 모임(+ 학생회) 등등. 2007년, 다시 ‘두드림’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고민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다른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두드림’이 사회에 파장이 될 수 있도록.

### 3. 꼬물꼬물, 눈을 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차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매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 장애, 성적체성, ‘인문계>실업계>비학생’이라는 등식 등등... 우리 가슴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차별에 눈을 떠봅시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함께 길러봅시다.

### 3.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다.

힘들었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우리 주변에는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기에 때로는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것들, 비록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꺼내놓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털어놓고 서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 일시, 장소, 참가비 등

일시 : 2007년 2월 10일~11일 (1박 2일)

장소 : 서울(추후공지)

참가방법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cafe.daum.net/youthhr)에서 신청

참가비 : 추후 공지(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현재 난장을 개최하기 위한 재정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지지가 될 것입니다.)

## -첨부 2-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 웹자보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2007년 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외글난장

# “지다”

미래의 행복이란 환상을 위해 오늘을 팔수는 없어.  
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푸른 싹이 아니야.  
자르지마, 때리지마, 가두지마.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나의 손을 잡아줘.  
서로의 지친 마음을 도닥이고 아픈 발을 주무르자.  
보다 단단하게 걷기 위한 소통과 다짐을 만들자.  
2007년, 다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인권을 짓자.

날 짜 : 2월 10일~11일 (1박2일)

장 소 : 추후공지

문 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  
([cafe.daum.net/youthhr](http://cafe.daum.net/youthhr))의 “활동가대회 준비게시판”  
016.463.4844 박조은미, 016.297.9803 전누리

청소년 인권활동을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환영해요 ^^